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강원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스무숲도서관	나빌레라 - 글 HUN 그림 지민, 위즈덤하우스	내게... 십 년이 있다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 거다. 내게 일 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도 행복해질 거다. 내게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다 해도 행복해지고 싶다. 내게 하루의 시간만 남았다 해도 그래도 행복해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 (p.238)
2	철암도서관	열세 살의 여름/이윤희/창비	인연을 끊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서로 무시하는거지.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나도 우리 반에 몇 명이랑 그렇게 지내. 진아한테 그런 일이 있었나? (p.355)
3	뒤뚜르어린이도서관	루드비히 B/데즈카 오사무/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음악은 인간 모두의 것이예요. 귀족만의 것이 아니라구요. 음악가도 귀족의 하인이 아니에요."
4	꾸러기어린이도서관	삐삐그래픽노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소녀 삐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글, 잉리드 방 니만 그림, 김영진 옮김, 시공주니어.	내 말은 너무 커서 저렇게 작은 종이에 는 그릴 수 없어요. 교실 바닥도 모자라는데요. 아무래도 꼬리는 복도에다 그려야 할 것 같아요. (p.19)
5	앞짱어린이도서관	며느라기/신지수 글, 그림/골프프레스	돕는다고? 나를? '응... 왜...' '구영아 나는 할아버지 본 적 없거든.. 내가 너를 돕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니?' '어? 어... 그런가?' (p.187~188 에피소드 "제사"중에서)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에다움작은도서관/백정희	진,진/이동은.정이용/창비	누구는 그냥 살라하고, 누구는 대비하라 하고. 대비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면 끝인가...? 사는 의미는 뭔지 모르겠고 산 만큼의 세월은 더 남아 있는데 그 세월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2 호수공원작은도서관/신현미	머느라기/신지수/쿨프레스	머느라기(期). 사춘기, 갱년기 처럼 머느라기가 되면 겪게 되는 '머느라기'라는 시대가 있다. 시댁 식구한테 예뻐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시기. 보통 1,2년이면 끝나는데 사람에 따라 10년 넘게 걸리기도, 안끝나기도 한다더라고.
3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정희	마르케스 - 가보의 마법 같은 삶과 백년 동안의 고독 /오르카르 판토하, 미겔부스 토스 글/ 펠리페 카마르고 로하스, 타티아나 코르도바 그림,/유 아가다 옮김이 /푸른지식	바로 그 문장이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가보가 어렸을 적 옛날이야기를 해줬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투여야 했다.
4 고양작은도서관/심은경	싫어증입니다,일하기싫어증/양경수그림 에세이/ 오우아	Q: 오~ 저기 아름답게 날아가는 건 뭐죠? A: 회사에 바친 자네 청춘이라네. →저 하늘을 빼곡히 수놓은 우리네 청춘들.
5 강촌공원5분걸음예쁜작은도서관/전성희	뉴키드/제리 크래프트 지음/보물창고	우리는 승리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심지어 11대 1로 졌다. 하지만 내가 넣은 골은 5팀이 7년 만에 처음으로 넣은 골이었다!
6 화전작은도서관/임희정	연의편지/조현아/손봄북스	내가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일에 나서서 그만하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네 덕분이야.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었어.
7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연희	열세 살의 여름/ 이윤희 지음/ 창비	네 마음속을 괴롭히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 그 마음하고 막싸우고 왜 그런지 물어보고 따져보고. 그래야 네가 거기서 배우게 될 거야.
8 그루터기 작은도서관/이병무	오늘의 인생 / 마스다 미리, 이소담 옮김 / 이봄	아침의 패밀리 레스토랑. 옆자리에는 젊은 아빠와 딸 "뭐 먹을래?" "아빠~ 어느 게 맛있어?" "이거일까~" 어느 게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질문!
9 에다움작은도서관/김희정	우두커니/심우도/심우도서	아빠가 언니와 엄마를 찾았다. 왜 안 오느냐고, 왜 연락이 없냐고 화를 내셨다. 아마도 '보고 싶다'는 단어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광주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책돌이도서관/신화숙	바늘땀/데이비드스몰 글 그림	6살 소년의 인생 스케치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리디아의 정원, 도서관의 그림 저자와 같은 사람인가 의심하며 작가 소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바늘땀을 쓰면서 고통과 직면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 책의 영문판의 마지막 장은 "I didn't"이다 그가 그 길을 가지 않아 다행이다
2 아이숲어린이도서관/문상희	바닷마을 다이어리/ 요시다 아키미/ 애니북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배다른 네자매가 살아가는 이야기. 일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사람사는 이야기가 따뜻하다.
3 책문화공간 봄/위명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 도베 게이코/ 자음과모음	엄마로 산다는 건?! 엄마로 만들어준 두 아들들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너희들의 엄마가 되게 해줘서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다. 딸이 없어 살가운 인사도 못 받으니 옆구리 찔러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답장을 받았다. 쥐어짜서 받아낸 답장이지만 그래도 좋다. 엄마는 그런건가 보다. 이 책은 장애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애타는 만화책이다. 처음에는 엄마도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에 힘들어 했고 남편과의 충돌, 이웃의 시선에 주저앉았지만 혼자서 감당해가는 엄마의 모습에 눈물이 났다. 가족 간에 화해를 하고 위기를 헤쳐 나가는 히카루 엄마의 당당한 모습에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고 싶었다. 도서관에는 3번 까지 밖에 없어 주인공 히카루의 초등학교 과정까지 밖에 못 읽었는데 현재 18번 중학교 과정 까지 나온 것 같다. 히카루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하고 응원하고 싶다. 책속의 인상깊은 장면은 히카루가 우연이지만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이 그 눈빛이 감동이었다
4 그림이있는 작은도서관/양애숙	신과 함께 이승편1/ 주호민 만화/ 문학동네	*마음에 와닿은 부분: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여덟 살 동현이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해맑은 아이'이다. 라는 이 귀절이 마음에 와 닿았고 어느날 문득 나의 삶의 무게에서 내안의 '해맑음을...' 간직하며 살아낸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 나의 삶이 새롭게 '해맑음'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내야지 하는 의지를 다져보는 계기가 되었다.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대구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예성 작은도서관	씨니 사이드 업 / 제니퍼 L. 홀름 저/매튜 홀름 그림/조고은 역 / 보물창고	"늘 씨니답게 지내렴!"
2	책마실도서관	곤 1·2 / 수신지 지음 / 굴프레스	곤'은 낙태죄가 합헌 결정을 받았다는 설정으로 대한민국 가임기 여성 모두가 인공낙태 테스트 IAT(Induced Abortion Test)를 받아야 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1년 동안 수감된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낙태'를 둘러싼 사회의 이중적 잣대를 투명하게 비춰보며 남성에게는 책임감, 여성에게는 죄책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낙태'라는 말, 낙태죄 앞에서 사라지는 아빠의 존재, 여성에게 기울어진 돌봄노동의 무게 등 우리 사회의 현실적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개인회원/손수정	만화로보는 민주화운동 제주4.3 빛창/6.10민주항쟁 1987그날/5.18 민주화운동 아무리얘기해도/4.19혁명 사일 구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을만화로 엮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시민들의 노력과 역사를 잊지않고 나아가기 위해 쓰고 그려진 이야기들. '너무나 당연한것은 억압받다 해방되었을때 얻게 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보니 새삼스레 느끼기 어려웠던거지. 공기,바람,물,자유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용기를 내면되는거야. 같이 하면되니까'
4	해봄도서관	시크릿 다이어리1.2.3.4./루스맥넬리 바쇼/장수하늘소	만화그림일기. 순수한 만화는 아님.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어린이의 세상을 보는눈이 재미있음. 아무튼 재미있음
5	개인회원/김경희	반달/김소희만화/만만한책방	30년전 송이가 지금의 송이에게 건네는 슬프지만 마음 따뜻한 이야기/ "지하 창고방의 무대를 닮은 반달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다. 밝게 빛나는 저 반달 속에서 우리는 가난하지도 외롭지도 않은 노래를 끝없이 부르고 있었다. 저 반달 속의 친구들을 나는 내내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다." <반달>중에서
6	반야월행복한어린이도서관 아띠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 / 필리파 피어스 원작 / 길벗어린이	아름다운 그래픽 노블로 새롭게 탄생한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를 통해 오랫동안 상상해 왔던 환상적이고 비밀스러운 모험이 가득한 톰의 정원을 만나 보세요!
7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죽음에 관하여 1,2/시니 글/허노 그림/영컴	기회는 없어. 넌 죽어버렸다. 삶은 단 한번뿐이야. 무슨 반전을 기대해? 반전은 숨을 쉬고 있을때만
8	그나라어린이도서관	까대기 / 이종철 글그림 /보림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까대기'. 오늘도 당연하게 받고 있는 많은 택배를 보면서 구간구간 수고한 손길들에게 절로 감사하게 되는 책이다.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사무국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이은주 나빌레라/HUN,지민/위즈덤하우스	날아올랐어?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현실 까대기/이종철/보리	몇 천 원 더 받자고 하는 짓 치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비참하기도 하고, 싹값에 너무 부러 먹잖아요. 맞는 말인데 돈에 쫓기다 보니까 일부러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당장 얼마라도 더 벌자는 생각만 했으니까.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혜령 평범한 8반/영파카/네이버 웹툰	말하지 않고 알아주리라 생각하지 말 것. 내 마음을 펼쳐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줄 것. 한번 알았다고 계속 알아주리라 기대하지 말 것. 불안해하지 않게 끊임없이 확인시켜줄 것. 멋진 연출을 기대하지 말 것. 볼품없거나 평범해도 오해하고 불안하게 만들지 말 것. 내 마음을 꺼내어 놓는 법을 배운 적 없다고 해도 스스로 부딪혀 가며 하나하나 배워갈 것.
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박현진 미래의 골동품 가게/구아진/네이버 웹툰	세상에서 얻은 상처가 안에서 굼아 터지고 썩어 문드러지면 그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이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온 것이라, 그 마음은 중국에 세상으로 향하고야 마는 것이니 그것은 기필코 약의 근본이 되고야 마는 마음인 것이지.
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채은아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 새벽/까마중/네이버 웹툰	인간은 역시 자신이 현재 속한 집단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나보다. 학생 때까진 힘들어도 높은 성적을 받으면 뿌듯했다. 그런데 직장인이 되고 보니 뿌듯할 일이 거의 없다. 직장인의 일은 모두 '당연히 해내야 할 것들' 뿐이라 그런 거 같다. 그러다 실수라도 하면 나는 그 '당연히 해내야 할 일'도 해내지 못한 모지리가 되어버린다.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나를 용납할 수 없어서 더 힘이 든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짐받듯 말한다. '더 이상 최악은 없다. 내가 강해졌기 때문에 최악은 지났다.' 그래, 내 인생 괜찮아.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았어. 실수 한 번으로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 칭찬에는 인색하면서 자책만 하는 건, 지금까지 잘 버텨온 나에게 너무 모진 대우니까. 당연한 건 없다. 오늘도 상처에 빠지지 않고 하루를 무사히 마친 나는, 적어도 나에게겐 칭찬 받을만 하다.
6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정에서 빌어먹을 세상 따위(The End of the Fxxxing World)/찰스 포스먼/프스케의 숲	제임스를 볼때면, 제가 사랑하는 한 소년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빌어먹을 한 낯선 사람도 있죠. (p.87)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장정민	밤의 교실/김규아/샘터	맞아. 재즈는 정해진 악보가 없어서 늘 새롭지. 마치 인생같아. 예상할 수 없는 기쁜일, 슬픈일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 내 삶이 하나의 곡이라면 어떻게 연주하고 있는 걸까.
2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생명 가족작은도서관 /김진영	몬스터 Monster(우라사와 나오키, 서울문 화사)	"사람은 감정을 없애기가 불가능하지... 감정은 어딘가 모르는 곳에서 해매고 있거든. 마치 내 앞으로 보낸 누군가의 편지가 수십년이 흐르고 나서야 도착한 것처럼... 이게 진짜 슬픔이고.. 행복이었어." / 인간의 악함이 후천적인건지, 선천적인건지 고민이 들었다.
3 홍부네그림책도서관 /김진희	도서관의 주인 1(시노하라 우미하루 지음, 대원씨아이)	이 막대한 책 속에서 자기만의 한 권을 발견하는 것. 완전히 보물찾기잖아 이 막대한 책 속에서 자기만의 한 권을 발견하는 것. 완전히 보물찾기잖아
4 초록나라도서관 /백은숙	치즈인더트랩/순끼/재미주의	만화책 읽기에 첫 도전입니다.. 조금은 '피식'하며 읽고 있어요~~ ^^ 그래도 다음편이 궁금해집니다.
5 와글와글작은도서관 /박승현	하면 좋습니까 (미강 / 위즈덤하우스)	세상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관계 맺음의 방법들에 대해, 좀 더 일찍 관심을 갖고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6 용강동작은도서관 / 손선미	오늘, 우주로 출근합니다 / 마리옹 몽테뉴 / 북스힐	버니바 부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과학은 수익성과 무관한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주에서는 여러 국가가 서로 협력합니다. 과학은 공공재를 넘어서 공동재산인 것이죠."
7 우디안 나무그늘 작은도서관 / 광려원	뽀빠툰(채유리, 북폴리오)	절대 애들 앞에선 슬픈 내색 하지 마세요. 애들도 다 느끼거든요.
8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백현진	부자의 그림일기 / 오세영, 글논그림발	다른 애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좋지 않다. 운동회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다. 느낀점: 만화를 읽으려다가 오래전 읽은 <문제아> 속 단편의 한 장면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렸다.
9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열 린사회 열린미디어 오세윤	천재 유교수의 생활 7/ Kazumi Yamashita /(주) 학산문화사	(유타) 내 안에 어머니가 있다는 말, 나는 안 믿어요. 인간은 전부 독립된 개체예요. (어머니) 우후후. 그래.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거야..
10 아름드리작은도서관 / 송영순	편함:가족희비극 / 엘리슨 벡델 / 움직씨	가장 단순한 상호간 형식으로 요약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과 나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은 어땠을까? (p.218)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울산경주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더불어숲작은도서관 이귀연	지슬-제주 4.3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오명 원작, 김금숙 그림/서해문집	당신과 나,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린 괜찮지 않다. (작가의 말)
2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노미정	안녕 커뮤니티 1,2/다드래기/창비	아파트라는 차가운 공간에 구식 노인들이 일구어놓은 작은 커뮤니티는 다행히 하나의 죽음이라도 모르고 지나치게 하지 않았다. 같이 울어줄 사람이 많아야 눈물이 나지. -작가의 말- 2권 (p.606)
3	더불어숲작은도서관 열무와화덕이	몬스터/우라사와 나오키/서울문화사	나도 세상이 캄캄한 줄 알았어.. 내일도 캄캄할 줄 알았어..넌 뭐 좋아해? 난 얼마 전 엄청 맛있는 소시지를 먹었어. 하지만 죽으면 다신 먹을 수 없게 돼. 난 축구가 좋아. 하지만 죽으면 공을 찰 수 없게 돼. 라이히와인 선생님이 좋아. 비서인 메레스 누나도 친절하고 하지만 죽으면 볼 수 없게 돼. 무서운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라고 했어! 내일은 좋은 날이라고..
4	문수산더샵작은도서관 문신임	귀멸의 칼날 1/고토케 코유히루/학산문화사	혈귀가 된 여동생 네즈코를 사람으로 되돌리려는 오빠 탄지로의 모험 (가족애와 감동. 웃음 이 있어 재밌게 보고있는 중 곧 완결판 나옴)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인천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콩세알도서관/문점숙	바닷마을 다이어리/저자: 요시다 아키미 / 역자: 조은하/출판사: 애니박스	<p>'이 앞의 미래도 행복이 무엇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세계는 끝없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난 어디든 갈 수 있다. 저 끝 어디라도, 아무리 먼 곳이라도'</p> <p>-바닷마을 다이어리9 다녀올게</p> <p>'어쩐지 말도 안 되는 변명처럼 들렸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어느새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만다.'</p> <p>-바닷마을 다이어리2 한낮에 뜬 달</p> <p>"많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느낌이네"</p> <p>토모아키가 한 말의 뜻을 조금 알 것 같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의외로 당연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다.</p> <p>-바닷마을 다이어리1 매미 울음소리 그칠 무렵</p>
2 와글와글작은도서관/구순례	의병장 희순/ 권숯돌 글/정용연 그림/ 후마니타스	<p>먹거리를 나누고 서로의 처지를 살피는 일 (p.316)</p> <p>보이지 않는 대의보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더구나.</p>
3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푸딩) / 안수진	아무리얘기해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마영신 만화 / 창비 출판사	<p>그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현재가 아닌 과거를 살면서 지금도 끔찍한 기억에 시달리며 절망속에서 최후의 선택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p.212)</p>
4 짱뚱이어린이도서관/ 이소운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1~5권)/ 김태권 글, 그림/ 비아북	<p>헬레니즘'에 대해, 서구의 시각에 젖어 있는 우리들로서는, 탁월한 그리스 문화가 세계화된 현상들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당시 '중동'에 살던 사람들이 보기에 이 현상이 마냥 즐겁기만 했을까?</p>
5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조미선	나빌레라/ HUN/ 위즈덤하우스	<p>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너무 나이든 것은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할때 찾아온 웹툰이었습니다^^</p>
6 꿈나무도서관/김광원	아버지/다니구치 지로/애니박스	<p>부모를 생각 안 하는 자식은 있어도,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기라.</p>
7 자람도서관/전민성	기다림/김금숙/딸기책방	<p>"엄마." "엄마 금방 올게, 아빠랑 있어"</p>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범지기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오유미	페르세폴리스/ 마르잔 사트라피 글그림/박인주역/출판사 휴머니스트	작가의 어린시절 이란에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래픽노블입니다. 독서동아리에서 몇년째 회자되는 책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란의 상황과 그들의 이야기가 아무런 색채 없이 담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마르잔의 외할머니가 너무나 인상적인 책으로 복잡하고 힘겨운 상황속에서도 유머와 여유가 보여지는 책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책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김은정	책읽기는 게임이야/지은아: 한미화 그림:소복이/웅진출판사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꼼꼼히 생각하게 해주는 그림책, 만화 형식으로 쉽게,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책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책! 책은 보물상자이고, 완두콩이래요. 책 읽기는 계단 오르기고, 거북이래요 왜그럴까요?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3	초롱이네도서관/오혜자	내 아버지의 집/ 파코 로카 지음/ 강미란 옮김 / 우리나비	부모님이 떠나시고 남은 집은 자식들에게 어떤 의미 일까요. 파는 것은 반대고, 보존하기에는 형편이 따르지 않네요. 이 세상 어디에서라도 고민하는 자식들이 있을 것 같은 질문 앞에서 이야기 속의 형제들도 선택의 시간을 맞이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긴 흔적들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4	해바라기도서관/홍근옥	별을 지키는 개/지은아: 무라카미 다카시 쓰고 그리다/BIROSSO(비로소)	해피라는 개의 눈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만화입니다
5	도토리숲작은도서관/윤순현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지은이 찰리맥 커시/상상의힘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쓸데 없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자신을 다른사람과 비교하는일" 이외에도 모든 대사가 명대사입니다
6	성성푸른도서관/박민주	고전 리뷰툰/작가 : 키두니스트 글그림 / 북바이북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오래전 읽은 인문고전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안 읽었는데 읽은 척 해야할 때 등등 고전을 가볍게 읽고 싶을때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독서 동아리에서 들을법한 다른 사람의 고전을 대하는 접근방식과 해석, 느낌도 엿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호남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간일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새싹작은도서관/이경화	반달/김소희/만만한 책방	내가 술집에 숨어 사는 도깨비라는 걸 알게 되면 어찌지. 아버지는 집에 없고 아니, 우리는 집이 없고 언니는 독서실에 살고 있는 것까지...아이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나는 적진에 그 애만 남겨두고 재빠르게 도망쳤다
2	삼성동어린이작은도서관/최민정	곤1,2/수신지/굴프레스	"불합리한 사회문제에 누구보다 분노하면서 왜 이런 일은 그냥 원래대로 하기를 바라는 건데?" "생각해보니 희한하네? 상은 남자가 받고 벌은 여자가 받고?"
3	하늘을 나는 도서관/노소희	열네살1,2/다니구치 지로/샘터	꽃이 지기 전 나는 봄으로 돌아갔다
4	여우네도서관/김명숙	묘씨맥주점/김경/송송책방	인간의 종이문치는 고양이에게도 나름대로 슬모가 있는데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 수면제로 제격이다
5	여우네도서관/이미정	애가/박경리/마로니에북스	행복할 적에는 그것이 바로 시니까, 저는 시를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슬플 적에는 시를 읊어요
6	여우네도서관/김명희	애쓰지 말고, 어쨌든 해결/소복이/사계절	해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어떤 마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지 찾을 수 있어야 해요.